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과 과제*

송 석 원 (경희대학교)
(j60w0178@khu.ac.kr)



국문요약

한국인의 해외 이민은 이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74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재외한인(Overseas Koreans)은 각각 다양한 이민 배경을 갖고 있으며 거주 국가별로 상이한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오늘날까지 이들의 이민 역사와 현재적 삶의 양상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때때로 그동안의 연구 및 조사 성과를 총괄한 것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재외한인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는 스스로도 재외한인인 연구자도 포함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증가에 비해 연구주제는 그다지 확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재외한인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민 배경 요인, 이민자 특성, 이민자의 모국 정체성, 이민자의 문화변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한인 가운데도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 연구는 아직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재외한인 연구가 한 단계 발전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재외한인, 내셔널리즘, 트랜스내셔널리즘, 모국 정체성

“내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나는 조선이 아리랑고개를 몇 고개나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조선은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외국군에게 한창 유린당하고 있었다. 1907년 조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된 뒤에는 7만의 조선군대가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국경 밖으로 퇴각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1910년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도 보았고, 해마다 1백만 명 이상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유랑하는 것도 보았다. 지금 조선 유랑민의 수는 2백만 명을 넘고 있는데, 이 중 만주에 1백만 명, 시베리아에 80만 명, 일본에 30만 명이 있고 나머지는 중국, 멕시코, 하와이, 미국 기타 지역에 흩어져 있다(김산 외 1997, 46).”

I. 머리말

재외한인(Overseas Koreans, Korean Abroad)은 말 그대로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 이민하여 삶을 영위하는 한민족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구별하여 이미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특정해서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외국민까지도 재외한인의 범주에 넣어 논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재외한인과 재외국민 관계를 병렬관계로 볼 것인가, 포괄관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성격과 연구 주제가 연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외한인과 재외국민의 용어 사용법에 대해 본인 자신이 재외한인인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물론,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양자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네이션(nation),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의 유지, 지속,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외선거와 같이 재외한인의 속성을 일률적이기보다는 재외국민과의 분리가 불가피한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재외한인과 재외국민은 병렬관계 혹은 대항관계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해외 이민은 이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영환의 말대로 “조선(한반도)의 근대는 '이산의 시대'였다(鄭榮桓 2011, 200)”고 할만하다. 김산이 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7만의 조선군대’와 ‘백 만을 넘는 유랑민’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쫓겨’ 갔다. 해방 이후에도 곧 이은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역시 ‘쫓기듯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남미로 이민해갔다. 지난 15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돌이켜 보며 다소 거칠게 정리하면, 앞의 100여 년 동안에는

쫓기거나 쫓기는 듯한 비자발적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뒤의 50여 년 동안에는 대체로 자발적 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최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경향이라 할만하다. 쫓기는 이민에서 자유로운 이민으로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는 100여 전에 쫓기거나 쫓기듯이 이민을 간 사람들의 후손보다는 지난 50여 전 사이에 자유 의지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민을 간 재외한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글로벌 마인드’로 더 한층 무장하게 될 앞으로의 이민 예비군들 역시 국가 혹은 민족 경계에서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외한인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모국 정체성이 발견되고 국가 역시 이들의 모국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재외한인의 다수가 ‘쫓기거나 쫓기듯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후손이어서 국가 및 사회가 다소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점¹⁾과 글로벌 마인드 소유 이민자 사이에서도 모국 정체성이 거주국에서의 자신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모국 정체성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김산은 조선인 유랑민수를 2백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1914년의 조선인수가 1,582만 명²⁾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백만 명에 이르는 유랑민수는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렇게 자의(자유의지)든 타의(쫓기듯이)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한반도의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주한 한인은 2019년 7월 현재 74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재외한인은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사가 민족사 및 세계사와 연동되면서 인문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재외한인을 연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조직은 1964년에 발족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8년 발족한 재외한인학회(1990년부터 학술지 『재외한인연구』 발간), 1998년 발족한 한국민족연구원(발족과 동시에 학술지 『민족연구』 발간), 2002년 발족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2007년부터 『디아스포라연구』 발간)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적으

1) 최근 재외한인학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재외한인과 보훈’이라는 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4일 국가보훈처가 후원하고 (사)재외한인학회가 주최한 「재외한인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현황과 전수 방안」이라는 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2)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1914년).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19. 07. 20.).

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실제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연구조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이슈로 한 보편적인 문제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재외한인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재외한인을 소재로 한 연구 업적이 다수 학술지에 게재돼 온 것은 사실이다. 전남대의 세계한상문화연구단도 2019년부터 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로 개명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외한인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재외한인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여하튼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들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왔으며 교포정책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동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국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차세대 연구자들을 배출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재외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미션(mission)과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의 재외한인학회·한국민족연구원·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 정부기관으로서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한인 연구와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다수의 연구소와 연구자의 활동이 재외한인연구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그동안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학계에서 논의되었고 이미 출판물로도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정리에 머무르고자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시기에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수년 후 다시 그 후의 성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그 후의 성과를 추가하는 정도의 정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양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문헌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연구 주제의 확장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개별 국가별 재외한인의 구성 내역을 이민 시기와의 연계 속에 정리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재외한인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 재외한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Ⅱ. 국가별 재외한인 구성과 이주 시기

근대 시기의 쫓기는 이민, 유랑민으로서의 이민에서 현대의 자유 의지의 이민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떠한 경과가 있었을까? 이 문제는 재외한인 이민사의 단계 설정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외한인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몇 단계의 이민시기를 제시하고 있는바, 대체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 기점과 연동되어 시기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구분은 연구자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가 논쟁적인 것은 아닌데, 1910년의 한일합방, 1945년의 해방, 1962년의 해외이주법 제정, 1989년 전후의 탈냉전 등이 시기구분의 주요 기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5단계로 시기를 나누게 되는데 윤인진(2004)의 시기구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합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 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리로 이주하였다. …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 난민들과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입하였으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장터로 끌려갔다. …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남한 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했다. …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했다. 1962년에 남한 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윤인진 2004, 8-10).”

주요 국가로의 한인들의 이민은 이와 같은 이민시기와 대체로 겹치면서도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 시기는 이민 배경(동기) 및 이민자 특성 등과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바, 국가별로 그 동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거주국의 민족정책이나 문화변용수준 등에 따라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민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될 터이다. 윤인진은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이민 시기, 세대 구성, 출신 지역, 이민 동기, 계층 배경,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요인, 이민자 특성,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민 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년 이전	1903-1905	1967년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년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 구성	3, 4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 지역	현재의 북한 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 현재의 북한 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후 : 한반도 내 지역으로 다양화	현재의 남한 지역(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 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 출신
이주 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이민)/1937-1945년에는 강제징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 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체류자(Sojourner)와 강제이주자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 농민, 노동자 중기 : 국제결혼 여성, 전쟁고아, 유학생 후기 : 고학력 중산층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 (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변용 수준	러시아문화로의 동화	민족문화 유지	일본문화로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유지	캐나다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유지
호칭	고려사람	조선족	재일(在日)한인	코리아-아메리칸	캐나다한인

출처: 윤인진(2004, 13-14).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윤인진은 국가별 재외한인의 이민시기를 <표 1>과 같이 4·5단계로 나누고 이어서 ‘세대구성’,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호칭’ 등에 대해 국가별 재외한인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다. 정리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참고할만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정리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거주국의 민족정책’, ‘문화변용수준’ 등은 기본적으로 ‘이민시기’와 관계없이 거주국의 국내정치사회문화 맥락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구성’,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호칭’ 등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한결같이 1단계나 2단계 등 이민 초기의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의 이민 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세대구성’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 현존 재외한인의 수가 비록 1단계 이민자의 후손이 압도적으로 많을지라도, 그 이후의 이민 단계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수나 그들의 후손들까지를 망라한 입체적 접근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출신지역’, ‘이주동기’, ‘계층배경’ 등도 마찬가지이다. <표 1>에 언급된 내용은 이민 1단계 시기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타당할 수 있지만, 예컨대, 4단계 혹은 5단계 이민자들의 경우 해당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민 1세, 2세, 3세 따위의 용어도 이민 시기가 서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후손)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듯하다. 예컨대, 이민 1단계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의 3세 혹은 4세가 이민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이민 1세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경우, 이민 2단계 혹은 3, 4단계에 이민을 가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민을 떠난 당사자가 1세대라고 한다면, 각 단계의 1세대와 다른 단계의 2세대, 3세대, 4세대의 공존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열려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1세, 2세, 3세 따위의 용어가 1단계 이민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그 이후 시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윤인진의 정리는 편리함은 있으나, 국가별 재외한인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국가별, 이민시기별, 내용별 등과 같이 입체적 정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Ⅲ. 재외한인 연구의 성찰적 회고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현재 20년 혹은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재외한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와 현재를 점검하면서 향후의 과제와 전망을 내놓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년사』 등과 같이 각 국가별 재외한인의 역사와 현재 생활상을 정리한 저서가 출판³⁾되었으며, 연구자들도 ‘재외한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단행본의 연구서를 발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인진 이외에 다수 연구자가 공동 참여한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와 윤인진이 편저자로 펴낸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대표 집필자인 윤인진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재외한인학회가 설립된 지 2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윤인진 외 2011, 9)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물로서 재외한인학회총서 1호로 출판된 것이었다. 학술지 『재외한인학회』에 그동안 게재된 논문의 내용분석을 포함해서 주로 중국조선족,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만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재외한인연구 문헌을 분석하였다.⁴⁾ 후자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캐나다, 브라질, 독일,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한인이 추가되었으나, 각 국가별 재외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앵글은 원칙적으로 각 연구자들의 관심에 맡겨져 다소 체계성을 결여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재외한인을 다루고 있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주로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는 주로 중국조선족,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정리하고 있다. 각 장의 말미에 관련 서지목록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문헌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을 다룬 장에서는 『재외한인연구』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전국학술지 등으로 나누고, 다시 『재외한인연구』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며, 단행본에 대해서는 연도별, 주제별, 저자별, 발행처별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있다.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연도별, 대학별, 학문 분야별 분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전국학술지에 대해서는 학술지별 중국조선족 관련 게재 논문수를 정리하고 있다. 고려인, 재일코리안, 재미교포 등에 관한 장에서도 중국조선족과 큰 차이 없이 연도별, 주제별, 학문 분야별로 정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석적이기보다는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측면이 강한 느낌이다. 그동안 축적된 다량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면서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국가별로 나누고, 다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으로 나눈 후, 각각에

3) 대표적으로 손정수 외(2005), 정하원 외(2011), 토론토한인회(2013) 등을 들 수 있다.

4) 흥미로운 사실은 재외한인학회가 그로부터 7년 후인 2018년 12월 15일에 『재외한인연구 30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를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중국 조선족, 고려인의 발표자는 윤인진 외(2011)에 집필자로 참여한 바 있었다.

대해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의 재외한인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총정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외한인연구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주 국가를 막론하고 재외한인연구의 대부분이 한국 혹은 거주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에 한국 및 이들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가 적절히 고려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 성과는 대체로 이민 초기를 다룬 연구서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앞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민 시기는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설명이 현저하지만, 그들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 단지 현상을 드라이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 학습, 한반도 통일관, 한국문화 이해 등과 모국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다룬 연구일수록 한국이나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전적으로 무시되기 일췌이다.

한편, 현재의 인구학적 통계를 보면, 재외한인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 1단계시기의 1세대보다는 그들의 후손인 이민 2세, 3세, 4세 혹은 다른 단계시기의 1세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비교적 최근에 이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외한인연구가 이들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 및 다른 단계 이민자 1세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준다. 특히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의 경우 거주국에서의 출생과 교육으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국의 문화전통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기는 하다. 더불어 각 단계 이민 시조(始祖)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는 연구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민 시조에 대한 기억 연구 성과도 분량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루트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 의미도 있고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재외한인연구에서의 새로운 주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각 단계별 이민 시조의 이민 동기, 루트, 삶의 환경 등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재외한인 연구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재외한인연구에서 ‘재외한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존재로 묘사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재외한인을

그들의 형성과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다수가 전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왓치 모를 ‘국가적 자산’⁵⁾이라는 감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자와 정부 당국자의 지적(知的) 공모의 결과 현저해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아니라 재외한인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외한인에게 ‘주체’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것은 그들이 낙엽귀근(落葉歸根)을 하든, 낙지생근(落地生根)(조정남 1998, 55)을 하든,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정치·사회·문화·경제적 맥락 속에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1단계 이민자의 2세, 3세, 4세 등이 수적 우월을 배경으로 재외한인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들을 ‘주체’로 해서 이들의 생활세계를 한국 혹은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연구가 최우길의 연구이다. 최우길은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국내 중국조선족 연구의 경향추이 분석과 향후 과제’를 맡아 집필하였다. 연구서의 전체적인 틀에 맞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최우길은 중국조선족에 대한 그동안 학계에 제출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 ‘조선족 연구 30년: 회고, 과제, 그리고 전망’⁶⁾에서는 ‘학문영역으로서의 조선족연구의 등장,’ ‘조선족의 역사 : 기원, 독립운동, 한국전쟁, 구술사,’ ‘한국과의 만남 :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법, 재한조선족사회의 형성,’ ‘조선족 정체성 : 중국공민, 재외동포, 동아시아인,’ ‘글로벌 도시의 조선족,’ ‘문학과 예술 : 새로운 조선족의 등장’ 등 주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주제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우길의 두 논문 사이에는 분명 연장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서술 방식의 변화에 의해 한층 더 분석적으로 중국조선족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최우길의 2018년의 발표문 역시 각 주제들 사이에는 연도별 분류의 측면도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및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중국조선족을 분류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외한인 스스로를 ‘주체’로 하여 그들의 생활세계에 보다 주목하면서 이를 한국 및 거주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도출해내는 것이 향후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5) 이러한 관점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문헌으로 尹京媛(2011)은 이광규(1997), 윤인진(2004) 등을 들고 있다.

6) 이 발표문은 후에 재외한인학회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최우길(2019, 29-54).

IV. 재외한인 연구의 새로운 과제 : 연구 주제의 확장

윤인진은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의 ‘머리말’에서 세계 170여 개국에 거주하는 700만 명(당시-집필자 주)의 재외한인의 존재와 2012년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게 된 점을 재외한인연구의 기회요인으로, 연구자의 수가 적고 학문 분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의 구심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1, 7-8). 이어서 그는 재외한인연구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①재외한인연구의 잠재적 자원을 결집하고, ②재외한인 연구자들 간의 소통과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며, ③상당한 수준의 재외한인 관련 연구를 축적해온 한국어 교육, 문학, 재외동포 교육, 선교 등과 같은 학문 분야 연구자들을 재외한인학회와 같은 학문공동체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④지역 간, 국가 간 연구 성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형연구가 미진한 지역과 국가(예컨대,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의 적극적 추진, ⑤재외한인사회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외한인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윤인진 2004, 8)고 제언하고 있다. 재외한인연구의 과제를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연구의 기회요인으로서의 재외동포의 압도적 수의 존재 이유나 연구 주제의 확장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뿐만 아니라, 재외한인연구에서의 여전한 연구자 중심 시점이 극복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외한인연구의 연구 주제 확장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재외한인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국경을 넘은 이민의 보편적 가능성은 증대 일로에 있다. 그런데 국제이민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되는데, 예컨대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이 그것이다. 배출요인은 이민자 소속 국가의 요인인 바, 정치적 위기,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 등이 주된 요인이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독재정지체제에서의 탄압, 박해, 내전 등을 들 수 있다(스티븐 카슬 외 2013). 보다 큰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경제적 빈곤도 이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물론 선진 국가의 고도전문기술인력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월경할 수 있으나, 빈곤이 일상화되어 있는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러한 정도의 고급 인력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월경할 수 있다. 이들은 고급전문기술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다중언어 구사 능력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민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편이다. 문제는 저개발 국가 출신의 비숙련노동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화된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이민을 택할 수 있다. 언어상의 불편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경제적 빈곤 타개가 우선순위가 되면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된다(木村雅昭 2012, 8). 사회적인 혼란은 정치적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자유의 위축, 사회적 성장 혹은 성공 가능성의 축소, 자존감의 하락 등이 원인이 되어 국제이민을 단행케 하는 것이다. 재외한인 역시 이와 같은 이민 배경을 갖고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7월 현재 재외한인은 약 74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재외한인의 대륙별 인원은 아주지역 약 392만 명, 미주지역 약 284만 명, 유럽지역 63만 명, 중동지역 약 2만 명, 아프리카지역 약 1만 명 등이다.⁷⁾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⁸⁾”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내세워도 좋은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이 말은 그야말로 5대양 6대주에 한민족이 이민해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과거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용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은 영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자국 식민지의 광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대영제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영제국의 전개가 팽창(膨脹)적 식민지 확장을 ‘백인의 의무(white man's burden)’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자기합리화 하였음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표현은 영국에서 스스로의 영광을 과시하는 용어일 수 있으나,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용어이다.

따라서 단지 세계 도처에 다수의 재외한인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민 제국주의’라도 목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 나아가 표현 자체가 여전히 재외한인을 ‘주체’로 보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도 윤경원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왜 한 세기 사이에 인구의 10%나 되는 재외한인(코리안 디아스포라)이 생겼는지, 무엇이 해방 후에도 이산을 계속시키고 있는지 등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尹京媛 2011, 226). 윤인진이 <표 1>에서도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같이 1단계 이민자들은 경제유민, 정치적

7)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출처: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검색일: 2019. 07. 20.).

8)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출처: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검색일: 2019. 07. 20.).

난민과도 같은 처지에서 김산이 표현하는 ‘유랑’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자유의지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빨라야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까지의 압도적 다수의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은 대체로 ‘유랑민’이었고,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의 이민이었을 것이다.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의 이민자들 역시 국경을 넘어가는 자만의 이유를 갖고 있을 터이다. 재외한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배출요인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한 이민자의 개별 이민 원인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은 적어도 윤경원의 질문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쫓겨서’ 혹은 ‘쫓기듯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왜 국가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재외한인을 ‘국가적 자산’ 운운할 수 있는가. 국가가 재외한인에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재외선거 실시에 즈음해서 재외한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외한인연구는 재외한인 당사자를 ‘주체’로 이해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윤경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외한인 증가 원인에 대한 윤경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일대사이기도 하다.

2. 이민자사회에 대한 종합적 접근

〈표 1〉에서도 정리된 바와 같이, 이민 시기는 최대 5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단계별 이민자의 출신지역, 이민동기, 계층배경 등이 상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민시기별 인적 구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1단계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이민 세대를 가리키는 호칭의 불충분성도 이러한 이민 시기별 인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재외한인들은 다양한 이민시기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이민시기의 차이가 다른 요소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외한인을 반드시 낙엽귀근의 측면만이 아니라 낙지생근의 측면에서 거주국에서의 생활자로서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주제로 분석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낙지생근의 측면에서 재외한인을 연구할 때, 이민자를 이민자로 보고 그들의 일상적 삶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견지할 자세가 될 것이다. 아마도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한인의 거주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들이 거주국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제반 문제들일 것이다. 일찍이 유고슬라비아의

이론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에드발드 카델리(Edvard Kardelj)는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의 모순은 항상 민족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민족정책이 잘못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사회의 대립은 직접 정치의 장에 등장하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그것은 언제나 민족 간 분쟁이 되어 나타난다(エドヴァルド 1986, 52)”고 지적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 지적은 약 50년 후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이민 선진국에서도 이민과 반이민의 격한 대립이 표출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재외한인 역시 거주국 이민자 마이너리티의 하나이다. 따라서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의 제한 요인과 기회 요인 등이 거주국 사회와의 맥락 속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거주국 내 재외한인 및 재외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수차례에 걸친 이민단계에서 각 단계 이민 시조는 연령적으로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의 고령화가 거주국 국민 및 다른 마이너리티들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거주국 마이너리티로서의 재외한인의 입지 및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사회 내부의 다문화 배경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대사가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반공포로 출신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김환기 2019, 85-94)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반공포로 출신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역사학의 영역에서는 일부 있지만, 다른 학문 영역,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쟁’과 ‘사상’에 치쳐 남미로 이민해간 반공포로 출신자의 이민생활을 정리하는 작업은 재외한인연구의 중요한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이민선 및 이민루트 연구

네가와 사치오(根川幸男)는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1920년 「남미·세계일주항로」 개발의 의미와 식민지기 조선의 모더니즘 (1920年「南米・世界一周航路」開設の意味と植民地期朝鮮のモダニズム)”를 발표하였다. 이민선의 항로에 관한 내용이다. 이민 항로에서 이민선이 교육·문명화의 기능, ‘국민’의 식 형성이 시공간, 동식물·문화교환의 미디어 등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根川幸男 2019, 63-68). 이민선연구는 곧 이민과정연구라 할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재외한인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민과정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민과정연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이민으로, 김산이 언급하는 바와 같은 “아리랑고개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민과정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민선과 관련해서도 이민선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을 뿐, 이민과정 설명은 거의 없다. 즉, 한국이민사박물관이 2010년에 발행한 자료집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보관 문서 기록을 토대로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7,415명의 한인들이 갤릭호(Gaelic), 아메리카 마루(America Maru), 차이나(China), 콕틱(Coptic), 도릭(Doric), 홍콩 마루(Hongkong Maru), 코리아(Korea), 만추리아(Manchuria), 몽고리아(Mongolia), 니혼 마루(Nippon Maru), 시베리아(Siberia) 등 모두 11척의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46-47). 호놀룰루 항 도착날짜, 선박명, 승선 한인수 등이 간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아리랑고개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랑민으로 하와이를 건너가는 한인 이민자들이 이민선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생활을 했는지 등이 보다 더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 역시 재외한인 연구의 큰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한인 가운데도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연구는 아직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외한인연구의 대부분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하히 유지, 강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한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는 시점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을 ‘주체’로 하는 연구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몇몇 용어들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한인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과 주제 다양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재외한인연구는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산·님 웨일즈. 조우화 역. 1997. 아리랑. 동녘.
- 김환기. 2019. 남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고향/조국의 기억 : 한국전쟁/근대산업화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손정수·장영철. 2005. 아르헨티나 한인이민40년사. 아르헨티나 한인이민문화연구원.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일조각.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_____ 외. 2011.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 _____ 편. 2018.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북코리아.
- 이광규. 1997. 국제화 시대의 한민족의 진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재외한인학회. 2018. 재외한인연구 30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 2018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집.
- 정하원·안경자·최금좌. 2011.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 브라질 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 조정남. 1998.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1.
- 토론토한인회. 2013. 캐나다한인사. 토론토한인회.
- 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エドヴァルド・カルデリ(高屋定国・定形衛訳). 1986. 民族と国際関係の理論. ミネルヴァ書房.
- 木村雅昭. 2012. EUと東アジア共同体. 徐興慶·陳永峰編. 轉換中のEUと「東アジア共同体」 : 台湾から世界を考える. 台湾大学出版中心.
- 鄭榮桓. 2011. 解放前における在外朝鮮人の形成と離散. 駒井洋·陳天璽·小林知子編.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 根川幸男. 2019. 1920年「南米・世界一周航路」開設の意味と植民地期朝鮮のモダニズ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 사람의 이동과 기억.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 尹京媛. 2011.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植民主義と離散. 駒井洋・陳天璽・小林知子編.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재외동포재단 www.okf.or.kr

● 투고일: 2019.08.04. ● 심사일: 2019.08.05. ● 게재확정일: 2019.08.11.

| Abstract |

Introspect and Prospect of Studies on Overseas Koreans

Song Seokwon (Kyung Hee University)

Korean emigration already has a history of over 150 years, and at present, July 2019, the counts are as high as 7.4 million. Overseas Koreans each have various emigration backgrounds and they have been leading different lives according to the country they moved to. Up to this day, there has been numerous studies conducted on their emigration history and present living conditions, and from time to time there has been studies that summed up the researches and inquiries conducted up until then. The number of researchers studying about Overseas Korean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cluding researchers who are Overseas Koreans themselve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subjects of study haven't been expensive compar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fact, when one looks into the subjects of the studies conducted up to this day, one can summarize them as: background reason for emigration, characteristics of emigrants, emigrants' motherland identity, and emigrants' acculturation. Commonly, one can assume that the explicit objective of not insisting on the borders of countries or races is inherent in emigration as today's transnational act itself. It is true that people with such awareness is increasing within Overseas Koreans. Nevertheless, studies on Overseas Koreans haven't been able to fully cross the borders between countries or races. Such aspects suggest that in order for studies on Overseas Koreans to develop further, the researchers need to ensure the diversity of the topics being studied.

<Key words> Overseas Koreans, nationalism, trans-nationalism, motherland identity